

(주)우성정공 박화석 회장, 지스트에 발전기금 2천만 원 기탁

- 우수 과학인재 양성 및 연구발전 위해 쾌척



▲ (왼쪽부터) 지스트 김기선 총장, (주)우성정공 박화석 회장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주)우성정공 박화석 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받았다고 24일(금) 밝혔다.

(주)우성정공 박화석 회장은 현재 지스트 발전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GTMBA(기술 경영아카데미) 과정 1기를 수료하였다. 2017년부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와 연계하여 매년 지스트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이번에 기탁한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지스트를 위한 누적 기부금액이 총 9,100만 원에 달한다.

1993년에 설립된 우성정공은 독보적인 멀티 사출 금형기술로 미국, 독일 등 해외 우수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었고,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등 국내 대기업에 금형을 공급하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우수 자본재 개발 대통령 표창 수상,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석탑산업훈장, 우수기업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많은 수상경력과 함께 박 회장은 현재 한국금형산업진흥회 회장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형산업 전문 경영인이자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박화석 회장은 "유망한 학생들과 전문적인 교수들이 많은 지스트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들을 많이 거둬들여 지스트가 최고의 과학기술 요충지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지스트 내에 소통과 교감이 잘 이루어져 학교가 더욱 성장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김기선 총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을 전하며, 지스트가 교육·연구 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하여 지역의 자랑이 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탁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되었다.